



INCHEON ECONOMIC TREND

## 인천경제동향

2019년 6월

## 인천경기종합지수 요약표

항목		2019년		전월대비 증감률
		3월	4월	
선행종합지수		103.3	103.2	-0.1%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94.1	93.8	-0.3p
구성 지표	신규구직자수	25,541명	24,204명	-5.23%
	재고순환지표	-8.8%	-12.5%	-3.7%p
	자동차등록대수비율	6.83%	6.84%	0.01%p
	건축허가면적	624,172㎡	1,070,280㎡	71.47%
	수출입물가비율(전국)	92.9%	91.6%	-1.3%p
	금융기관유동성	37조 6,261억 6천만원	37조 7,156억 1천만원	0.24%
	장단기금리차	-0.11%	-0.12%	-0.01%p
동행종합지수		105.1	104.6	-0.5%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96.7	96.1	-0.6p
구성 지표	비농가취업자수	143만 3천명	145만 5천명	1.54%
	산업생산지수	107.1	104.9	-2.05%
	컨테이너처리량	253,365TEU	273,170TEU	7.82%
	전력사용량	2,006,746MWh	1,975,424MWh	-1.56%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88.2	76.3	-13.49%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9.6	99.5	-0.07%
	수출액	32억 5천 2백만불	33억 5백만불	1.64%
	수입액	32억 7천 1백만불	34억 3천만불	4.85%

# 목 차

I. 인천경기종합지수 개관	3
II.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4
1. 4월 선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4
2. 4월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별 변동	6
1) 신규구직자수	6
2) 재고순환지표	7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8
4) 건축허가면적	9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10
6) 금융기관유동성	11
7) 장단기금리차	12
III.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13
1. 4월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13
2. 4월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별 변동	15
1) 비농가취업자수	15
2) 산업생산지수	16
3) 컨테이너처리량	17
4) 전력사용량	18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19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
7) 수출액	21
8) 수입액	22
IV.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 최근 추이	23
부록. 경기종합지수 전국/인천 추이 비교	25
부록. 인터뷰를 통해 본 인천시 청년 일자리	27

\* 일러두기 : 전월대비, 전년대비 등의 수치는 반올림이 적용된 관계로 실제 제시된 수치의 계산과 다를 수 있음

## 표 차례

〈표 II-1〉	선행종합지수	4
〈표 II-2〉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5
〈표 II-3〉	신규구직자수와 증감률	6
〈표 II-4〉	재고순환지표와 증감률차	7
〈표 II-5〉	자동차등록대수비율과 증감률차	8
〈표 II-6〉	건축허가면적과 증감률	9
〈표 II-7〉	수출입물가비율과 증감률차	10
〈표 II-8〉	금융기관유동성과 증감률	11
〈표 II-9〉	장단기금리차와 증감률차	12
〈표 III-1〉	동행종합지수	13
〈표 III-2〉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14
〈표 III-3〉	비농가취업자수와 증감률	15
〈표 III-4〉	산업생산지수와 증감률	16
〈표 III-5〉	컨테이너처리량과 증감률	17
〈표 III-6〉	전력사용량과 증감률	18
〈표 III-7〉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증감률	19
〈표 III-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증감률	20
〈표 III-9〉	수출액과 증감률	21
〈표 III-10〉	수입액과 증감률	22
〈표 IV-1〉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 최근 추이	23

## 그림 차례

〈그림 II-1〉	선행종합지수	5
〈그림 II-2〉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5
〈그림 II-3〉	신규구직자수와 증감률	6
〈그림 II-4〉	재고순환지표와 증감률차	7
〈그림 II-5〉	자동차등록대수비율과 증감률차	8
〈그림 II-6〉	건축허가면적과 증감률	9
〈그림 II-7〉	수출입물가비율과 증감률차	10
〈그림 II-8〉	금융기관유동성과 증감률	11
〈그림 II-9〉	장단기금리차와 증감률차	12
〈그림 III-1〉	동행종합지수	14
〈그림 III-2〉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14
〈그림 III-3〉	비농가취업자수와 증감률	15
〈그림 III-4〉	산업생산지수와 증감률	16
〈그림 III-5〉	컨테이너처리량과 증감률	17
〈그림 III-6〉	전력사용량과 증감률	18
〈그림 III-7〉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증감률	19
〈그림 III-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증감률	20
〈그림 III-9〉	수출액과 증감률	21
〈그림 III-10〉	수입액과 증감률	22

# I. 인천경기종합지수 개관

## 경기종합지수 법적근거 및 작성 목적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의 각 부문별(생산, 소비, 고용, 금융, 무역, 투자 등)로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한 종합경기지표로 경기변동의 국면 및 전환점과 속도 및 진폭 측정 등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경기종합지수에는 대상 시기에 따라 선행(Leading), 동행(Coincident), 후행(Lagging) 종합지수가 있으며 인천의 경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공표
- 인천선행종합지수(경기종합지수 승인번호 20408)는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7개 지표들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
  - 7개 구성 지표 :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자동차등록대수비율, 건축허가면적, 수출입물가비율(전국),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
- 인천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8개 지표로 구성
  - 8개 구성 지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컨테이너처리량, 전력사용량,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수출액, 수입액

## 지수 작성 방법

- 2009년부터 KOSTAT-CIS를 이용하여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산출·공표

## 공표 일정

- 「인천경제동향」 경기종합지수는 매월 20일 전후로 인천시청 및 인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함

## 지수 작성 변경사항

- 2018년 1월 경기종합지수 작성부터 구성지표의 기준년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되었음
- 선행종합지수의 구성지표였던 순상품교역조건 예측에 사용되는 수출입단가지수 원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제공하여 왔으나 2012년 12월로 작성이 중단되어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순상품교역조건을 수출입물가비율로 변경하였음

## II.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1. 4월 선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4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0.1% 감소
-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3.8로 전월대비 0.3p 감소
- 구성지표의 전월대비 변화
  - 증가지표: 자동차등록대수비율, 건축허가면적, 금융기관유동성
  - 감소지표: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장단기금리차
  - 동일지표: 없음

〈표 II-1〉 선행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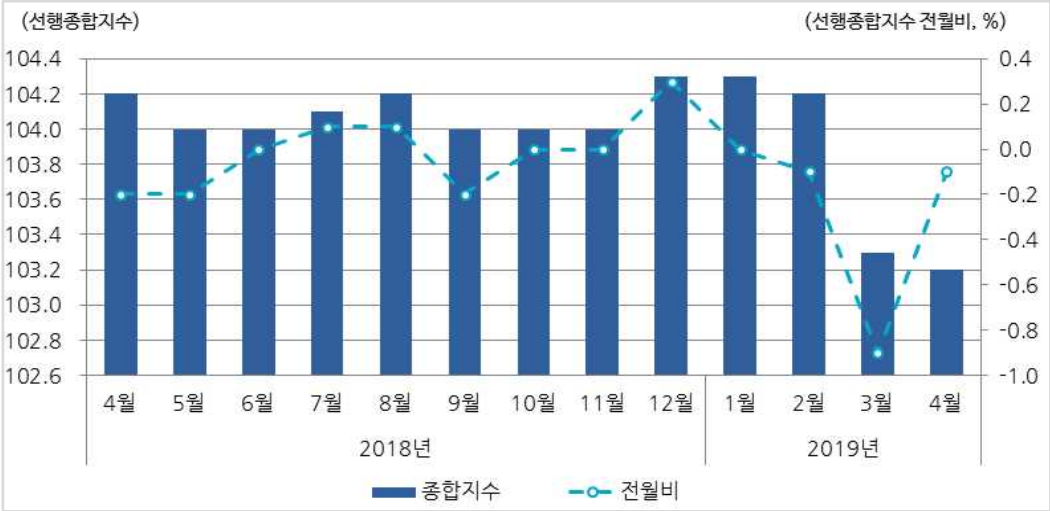
(단위: 2015 = 100,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선행 종합지수	104.2	104.0	104.0	104.1	104.2	104.0	104.0	104.0	104.3	104.3	104.2	103.3	103.2
선행 종합지수 전월비	-0.2	-0.2	0.0	0.1	0.1	-0.2	0.0	0.0	0.3	0.0	-0.1	-0.9	-0.1

주:

- (1) 2015=100은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2015년)과 일치시킴으로써 자료의 비교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그림 II-1) 선행종합지수



〈표 II-2〉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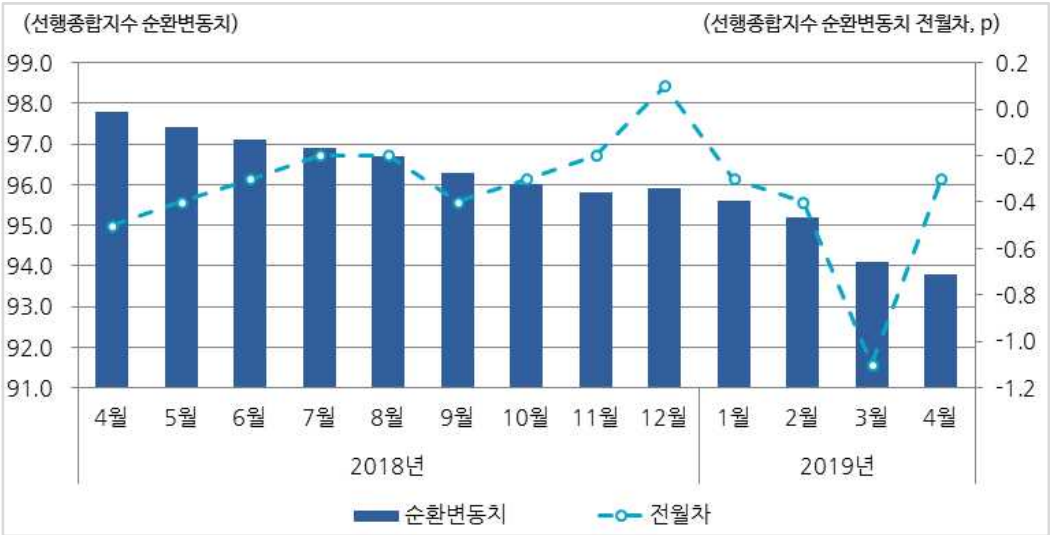
(단위: trend=100, p)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순환 변동치	97.8	97.4	97.1	96.9	96.7	96.3	96.0	95.8	95.9	95.6	95.2	94.1	93.8
순환 변동치 전월차	-0.5	-0.4	-0.3	-0.2	-0.2	-0.4	-0.3	-0.2	0.1	-0.3	-0.4	-1.1	-0.3

주:

- (1) trend = 100은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큰 추세를 근거로 하는 개념임
- (2)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표 II-3〉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 2. 4월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별 변동

### 1) 신규구직자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등록된 구직자들을 월 단위로 추출한 것으로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인력수급 상황보고 등 고용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 지표출처

- 한국고용정보원(keis.or.kr)\_구인구직통계(`19.04)

####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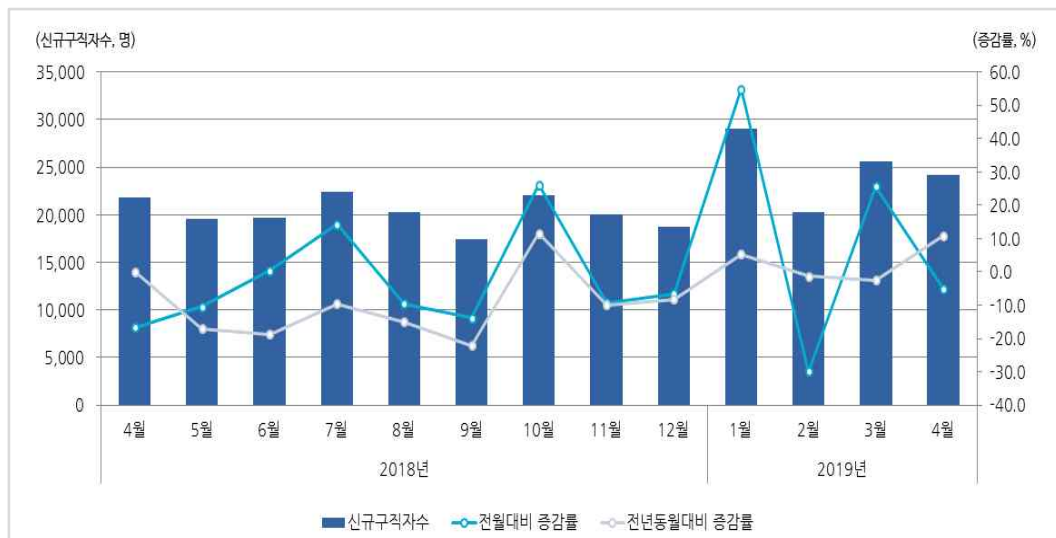
-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4,204명으로 전월대비 1,337명(-5.23%)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2,373명(10.87%)이 증가

〈표 II-3〉 신규구직자수와 증감률

(단위: 명,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신규구직자수	21,831	19,549	19,626	22,438	20,287	17,476	22,055	20,014	18,726	28,994	20,320	25,541	24,204
전월대비증감률	-16.68	-10.45	0.39	14.33	-9.59	-13.86	26.20	-9.25	-6.44	54.83	-29.92	25.69	-5.23
전년동월대비증감률	0.00	-17.08	-18.77	-9.57	-14.96	-22.02	11.63	-9.82	-8.14	5.31	-1.35	-2.52	10.87

(그림 II-3) 신규구직자수와 증감률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생산자제품출하지수 :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공업 및 전기, 가스제품의 출하동향을 나타내는 지수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광업 및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재고의 변동을 파악하는 지수

■ 지표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_광업제조업동향조사(2019)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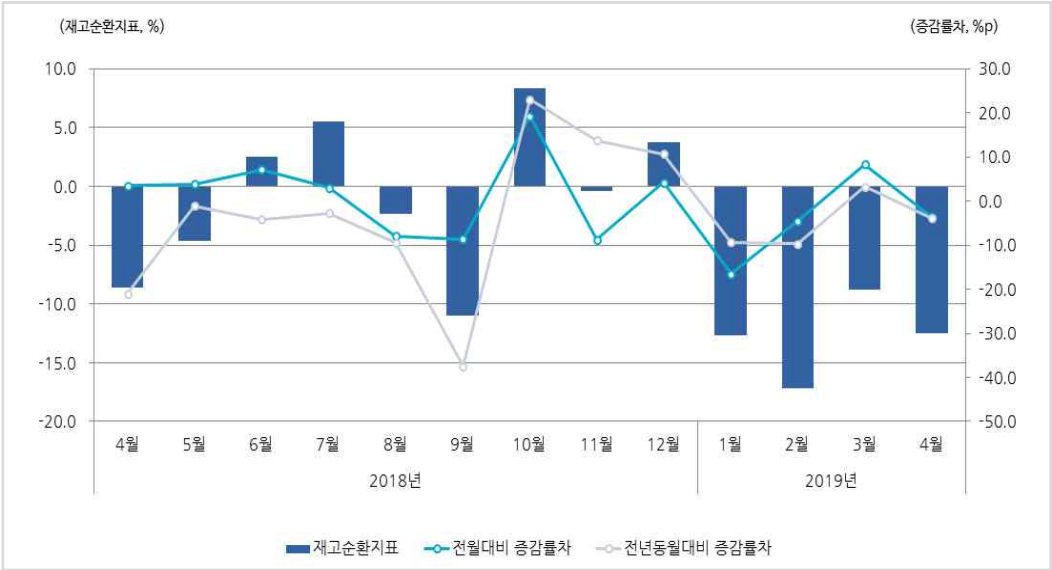
- 4월 재고순환지표는 -12.5%로 전월대비 3.7%p 감소, 전년동월대비 4.0%p 감소

〈표 II-4〉 재고순환지표와 증감률차

(단위: %, %p)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재고순환지표	-8.6	-4.7	2.5	5.5	-2.4	-11.0	8.3	-0.4	3.8	-12.7	-17.2	-8.8	-12.5
전월대비증감률차	3.5	3.9	7.2	3.0	-7.9	-8.6	19.3	-8.8	4.2	-16.5	-4.5	8.4	-3.7
전년동월대비증감률차	-21.0	-1.1	-4.1	-2.8	-9.4	-37.5	23.0	13.8	10.7	-9.3	-9.7	3.3	-4.0

(그림 II-4) 재고순환지표와 증감률차



###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 ■ 지표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molit.go.kr)\_자동차등록대수현황보고(2019)

####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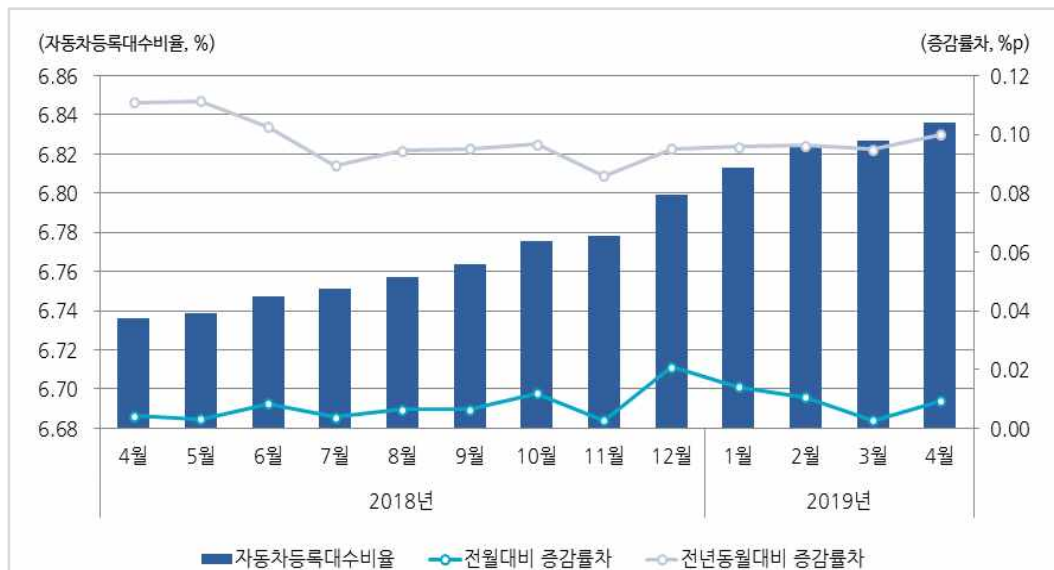
-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84%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10%p 증가

〈표 II-5〉 자동차등록대수비율과 증감률차

(단위: %, %p)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자동차등록 대수비율	6.74	6.74	6.75	6.75	6.76	6.76	6.78	6.78	6.80	6.81	6.82	6.83	6.84
전월대비 증감률차	0.00	0.00	0.01	0.00	0.01	0.01	0.01	0.00	0.02	0.01	0.01	0.00	0.01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차	0.11	0.11	0.10	0.09	0.09	0.10	0.10	0.09	0.10	0.10	0.10	0.09	0.10

(그림 II-5) 자동차등록대수비율과 증감률차



4) 건축허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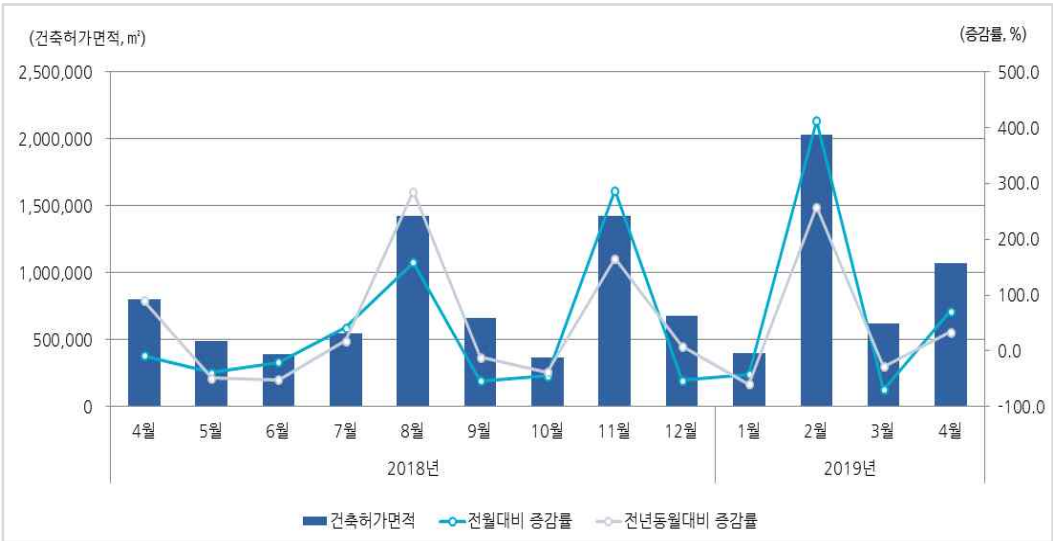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로 건설 경제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 · 생산 예측을 위해 이용

- 지표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molit.go.kr)\_건축물허가착공통계(2019)
- 지표의 변동내용
  - 4월 건축허가면적은 1,070,280㎡로 전월대비 446,108㎡(71.47%)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271,557㎡(34.00%)가 증가

<표 II-6> 건축허가면적과 증감률 (단위: ㎡,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건축허가 면적	798,723	486,482	388,204	550,395	1,421,041	661,980	367,417	1,420,978	679,635	396,876	2,029,799	624,172	1,070,280
전월대비 증감률	-8.40	-39.09	-20.20	41.78	158.19	-53.42	-44.50	286.75	-52.17	-41.60	411.44	-69.25	71.47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89.40	-48.68	-51.76	18.41	285.34	-11.33	-37.79	165.13	8.29	-58.97	257.91	-28.42	34.00

(그림 II-6) 건축허가면적과 증감률



##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 지표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_경기종합지수(2019)

### ■ 지표의 변동내용

-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1.6%로 전월대비 1.3%p 감소, 전년동월대비 5.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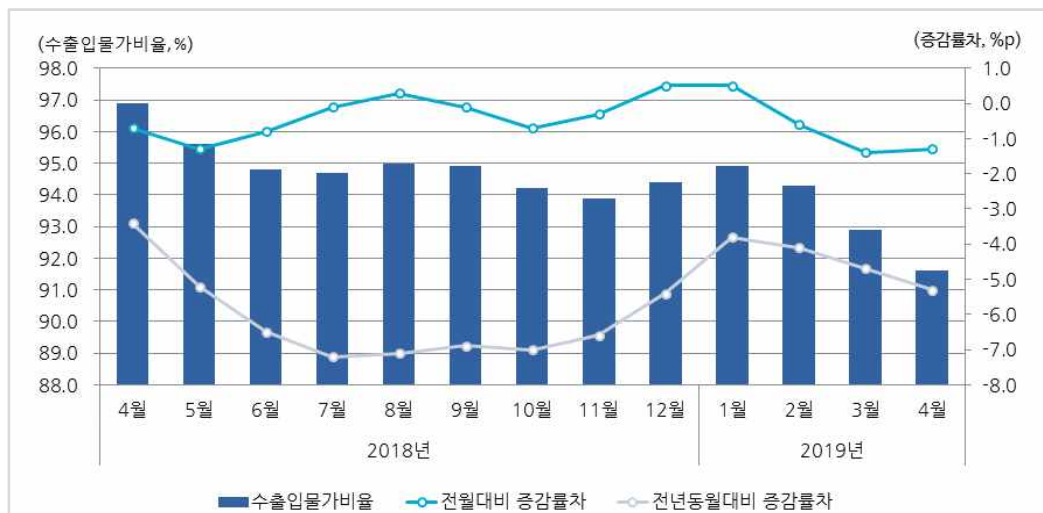
〈표 II-7〉 수출입물가비율과 증감률차

(단위: %, %p)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수출입 물가비율	96.9	95.6	94.8	94.7	95.0	94.9	94.2	93.9	94.4	94.9	94.3	92.9	91.6	
전월대비 증감률차	-0.7	-1.3	-0.8	-0.1	0.3	-0.1	-0.7	-0.3	0.5	0.5	-0.6	-1.4	-1.3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차	-3.4	-5.2	-6.5	-7.2	-7.1	-6.9	-7.0	-6.6	-5.4	-3.8	-4.1	-4.7	-5.3	

주: 2019년 6월호부터 수출입물가지수 기준년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

(그림 II-7) 수출입물가비율과 증감률차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지표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_주요 통화금융지표
- 지표의 변동내용
  -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37조 7,156억 1천만원으로 전월대비 0.24% 증가, 전년동월대비 7.06% 증가

〈표 II-8〉 금융기관유동성과 증감률 (단위: 십억원,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금융기관 유동성	35,227.39	35,255.03	35,522.46	35,611.00	35,644.94	35,696.10	36,060.30	36,569.49	36,973.20	37,299.13	37,353.81	37,626.16	37,715.61	
전월대비 증감률	0.26	0.08	0.76	0.25	0.10	0.14	1.02	1.41	1.10	0.88	0.15	0.73	0.24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4.99	4.44	4.09	4.00	4.05	4.55	5.20	5.98	6.58	7.02	6.93	7.08	7.06	

주: 2019년 6월호부터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

(그림 II-8) 금융기관유동성과 증감률



##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 지표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_시장금리(월, 분기, 년)

###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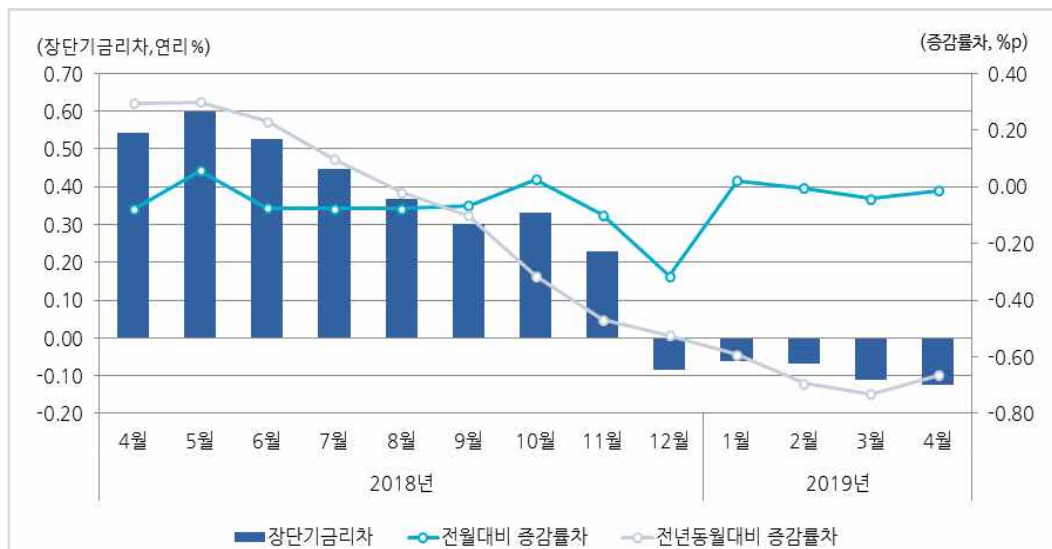
- 4월 장단기금리차는 -0.12%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67%p 감소

〈표 II-9〉 장단기금리차와 증감률차

(단위: 연리%, %p)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장단기금리차	0.54	0.60	0.53	0.45	0.37	0.30	0.33	0.23	-0.09	-0.06	-0.07	-0.11	-0.12
전월대비 증감률차	-0.08	0.06	-0.08	-0.08	-0.08	-0.07	0.03	-0.10	-0.32	0.02	0.00	-0.04	-0.0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차	0.29	0.30	0.23	0.10	-0.02	-0.10	-0.32	-0.47	-0.53	-0.59	-0.70	-0.73	-0.67

(그림 II-9) 장단기금리차와 증감률차



### III.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1. 4월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4월 동행종합지수는 104.6으로 전월대비 0.5% 감소
-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6.1로 전월대비 0.6p 감소
- 구성지표의 전월대비 변화
  - － 증가지표: 비농가취업자수, 컨테이너처리량, 수출액, 수입액
  - － 감소지표: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 동일지표: 없음

〈표 III-1〉 동행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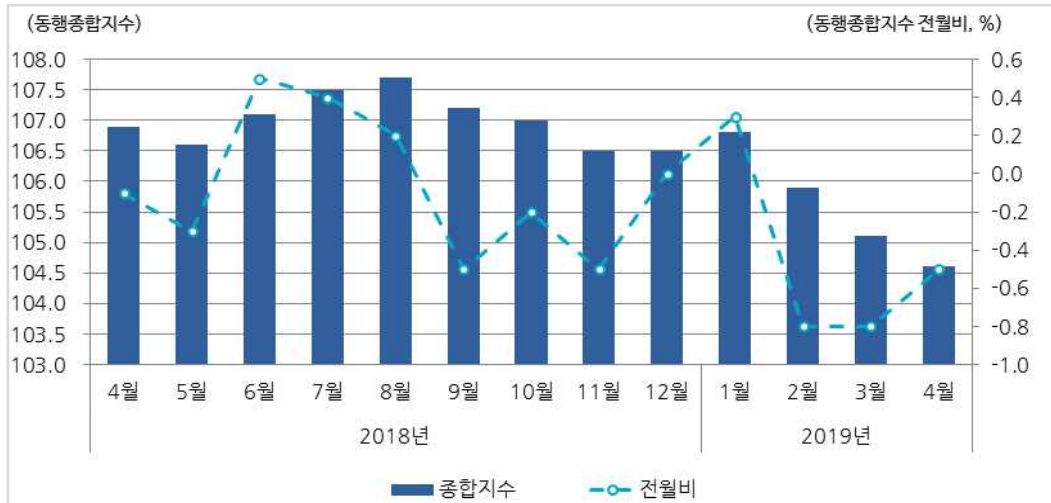
(단위: 2015 = 100,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동행 종합지수	106.9	106.6	107.1	107.5	107.7	107.2	107.0	106.5	106.5	106.8	105.9	105.1	104.6	
동행 종합지수 전월비	-0.1	-0.3	0.5	0.4	0.2	-0.5	-0.2	-0.5	0.0	0.3	-0.8	-0.8	-0.5	

주:

- (1) 2015=100은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2015년)과 일치시킴으로써 자료의 비교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그림 III-1) 동행종합지수



〈표 III-2〉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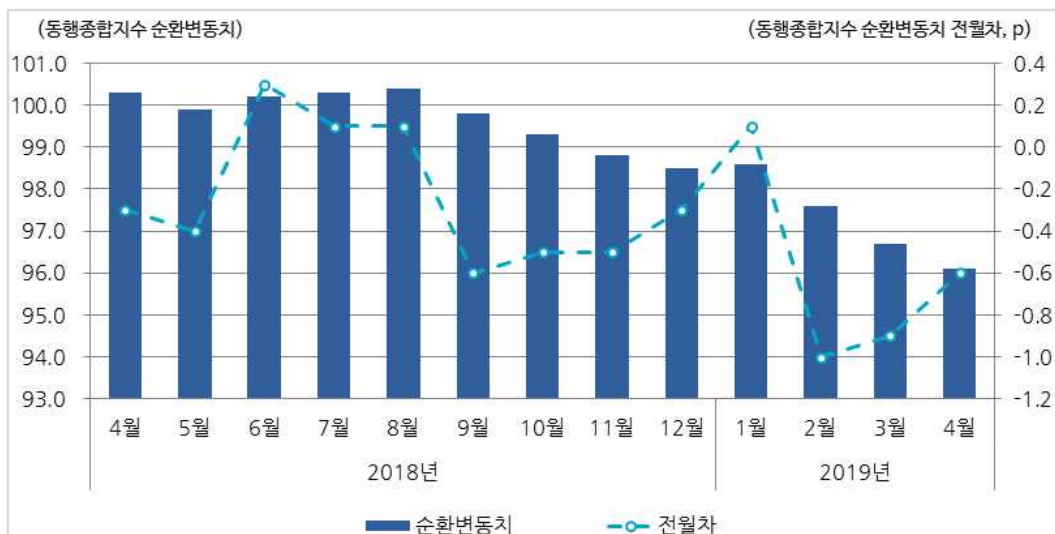
(단위: trend = 100, p)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순환 변동치	100.3	99.9	100.2	100.3	100.4	99.8	99.3	98.8	98.5	98.6	97.6	96.7	96.1
순환 변동치 전월차	-0.3	-0.4	0.3	0.1	0.1	-0.6	-0.5	-0.5	-0.3	0.1	-1.0	-0.9	-0.6

주:

- (1) trend = 100은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큰 추세를 근거로 하는 개념임
- (2)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그림 III-2)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 2. 4월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별 변동

###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 지표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_경제활동인구조사\_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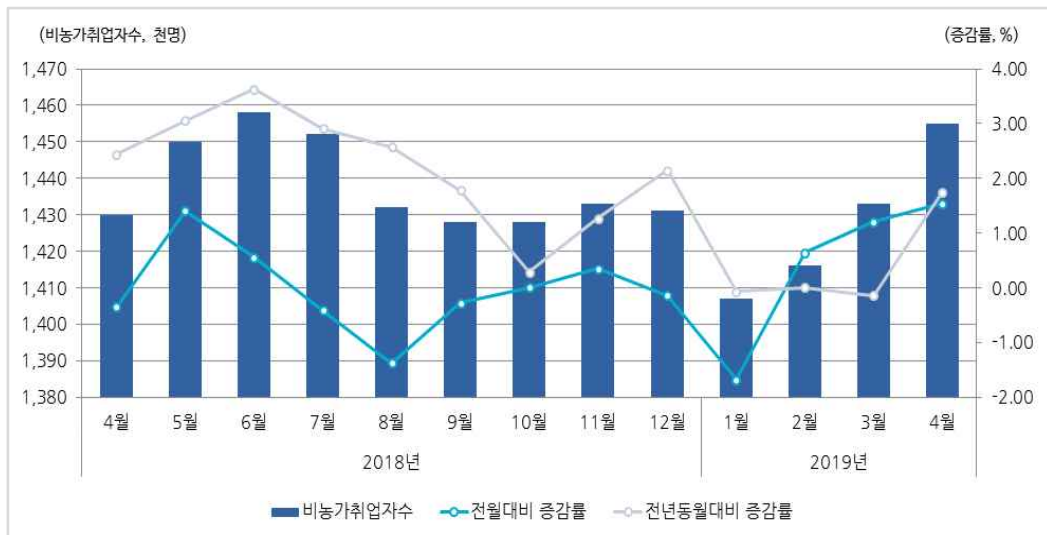
-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5만 5천명으로 전월대비 2만 2천명(1.54%)이 증가, 전년동월 대비 2만 5천명(1.75%)이 증가

〈표 III-3〉 비농가취업자수와 증감률

(단위: 천명,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비농가 취업자수	1,430	1,450	1,458	1,452	1,432	1,428	1,428	1,433	1,431	1,407	1,416	1,433	1,455	
전월대비 증감률	-0.35	1.40	0.55	-0.41	-1.38	-0.28	0.00	0.35	-0.14	-1.68	0.64	1.20	1.54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2.44	3.06	3.62	2.91	2.58	1.78	0.28	1.27	2.14	-0.07	0.00	-0.14	1.75	

(그림 III-3) 비농가취업자수와 증감률



##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 지표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_광업제조업동향조사\_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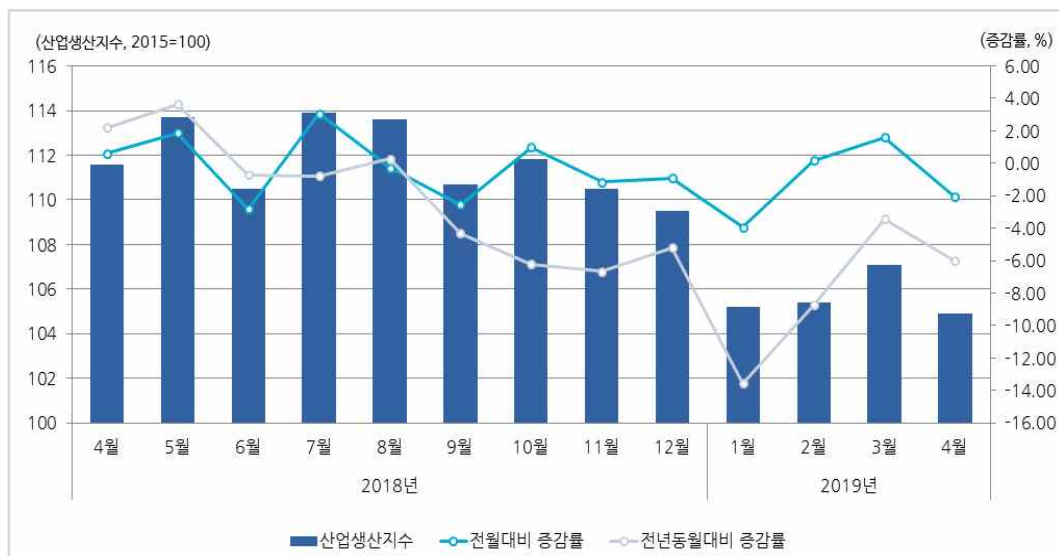
- 4월 산업생산지수는 104.9로 전월대비 2.2(-2.05%)만큼 감소, 전년동월대비 6.7(-6.00%)만큼 감소

〈표 III-4〉 산업생산지수와 증감률

(단위: 2015=100,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산업 생산지수	111.6	113.7	110.5	113.9	113.6	110.7	111.8	110.5	109.5	105.2	105.4	107.1	104.9	
전월대비 증감률	0.63	1.88	-2.81	3.08	-0.26	-2.55	0.99	-1.16	-0.90	-3.93	0.19	1.61	-2.05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2.20	3.65	-0.72	-0.78	0.26	-4.32	-6.21	-6.67	-5.19	-13.56	-8.74	-3.43	-6.00	

(그림 III-4) 산업생산지수와 증감률



###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 지표출처

-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portmis.go.kr)\_인천항 컨테이너 수송실적

####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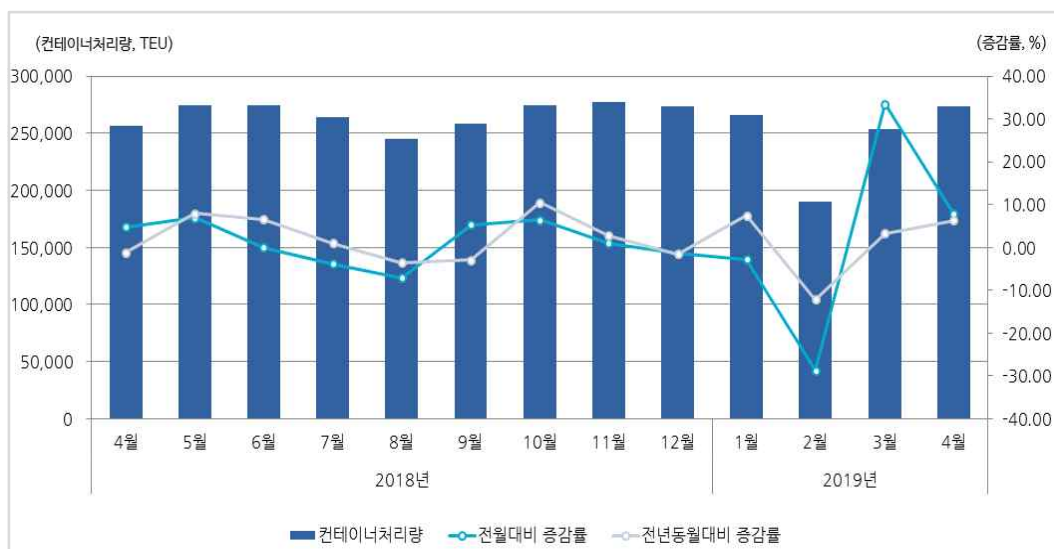
- 4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73,170TEU로 전월대비 19,805TEU(7.82%)가 증가, 전년동월 대비 16,352TEU(6.37%)가 증가

〈표 III-5〉 컨테이너처리량과 증감률

(단위: TEU,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컨테이너 처리량	256,818	274,595	274,688	264,221	245,426	258,416	274,956	277,635	273,777	266,187	189,732	253,365	273,170	
전월대비 증감률	4.76	6.92	0.03	-3.81	-7.11	5.29	6.40	0.97	-1.39	-2.77	-28.72	33.54	7.82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1.19	7.96	6.64	1.08	-3.55	-2.86	10.45	2.82	-1.53	7.43	-12.15	3.36	6.37	

(그림 III-5) 컨테이너처리량과 증감률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지표출처

• 한국전력공사 지식센터(cyber.kepco.co.kr)\_2019년 4월 전력통계속보(제486호)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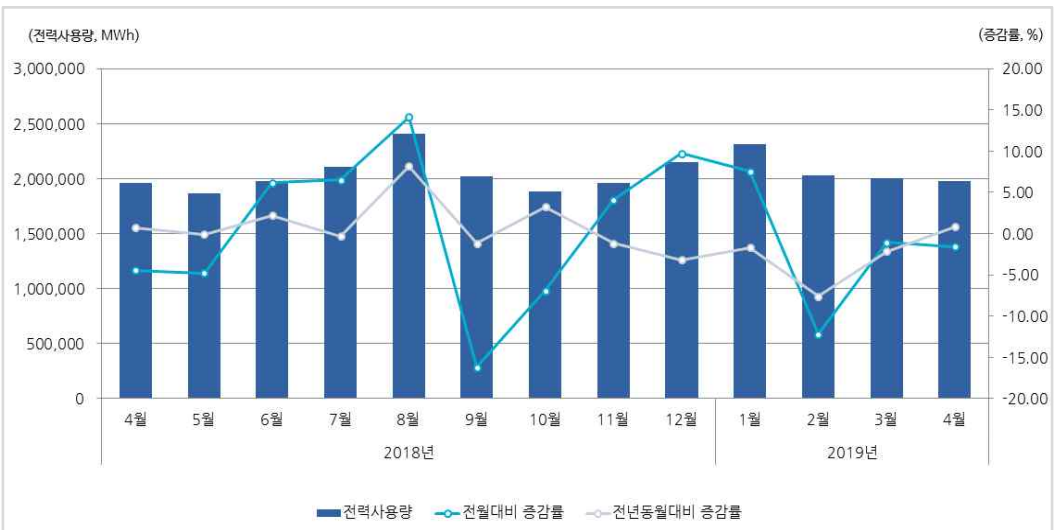
• 4월 전력사용량은 1,975,424MWh로 전월대비 31,322MWh(-1.56%)가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913MWh(0.81%)가 증가

〈표 III-6〉 전력사용량과 증감률

(단위: MWh,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력 사용량	1,959,511	1,865,680	1,981,285	2,110,535	2,408,422	2,019,014	1,879,956	1,956,641	2,146,569	2,309,124	2,028,323	2,006,746	1,975,424
전월대비 증감률	-4.43	-4.79	6.20	6.52	14.11	-16.17	-6.89	4.08	9.71	7.57	-12.16	-1.06	-1.56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0.71	-0.09	2.23	-0.34	8.20	-1.18	3.25	-1.17	-3.17	-1.68	-7.61	-2.12	0.81

(그림 III-6) 전력사용량과 증감률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지표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_서비스업동향조사\_17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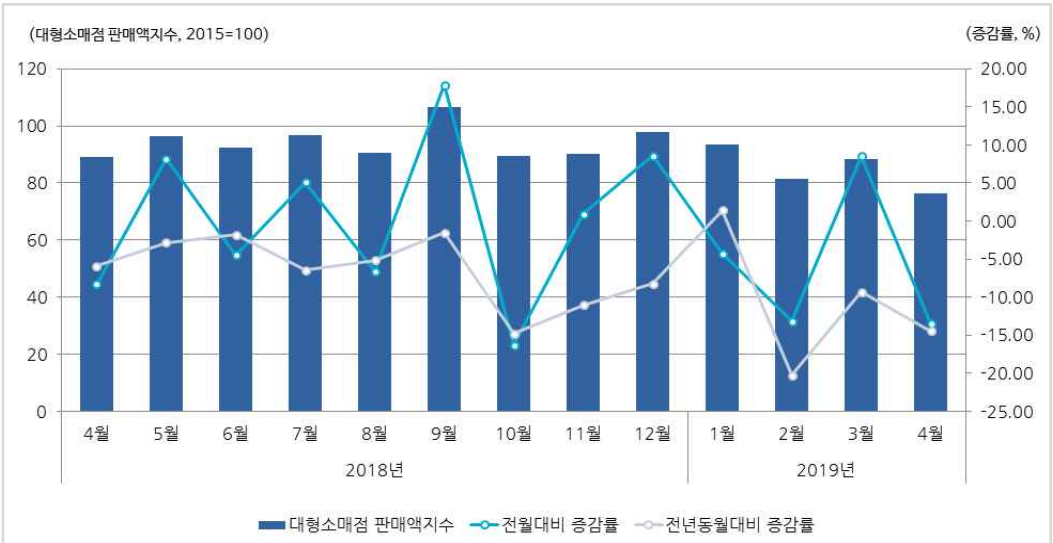
■ 지표의 변동내용

-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3으로 전월대비 11.9(-13.49%)만큼 감소, 전년동월대비 12.9(-14.46%)만큼 감소

〈표 III-7〉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증감률 (단위: 2015=100,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89.2	96.5	92.2	96.9	90.5	106.7	89.3	90.1	97.8	93.6	81.3	88.2	76.3
전월대비 증감률	-8.32	8.18	-4.46	5.10	-6.60	17.90	-16.31	0.90	8.55	-4.29	-13.14	8.49	-13.49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5.91	-2.82	-1.81	-6.47	-5.14	-1.57	-14.79	-11.06	-8.26	1.41	-20.29	-9.35	-14.46

(그림 III-7)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증감률



##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 지표출처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co.kr)\_2019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 지표의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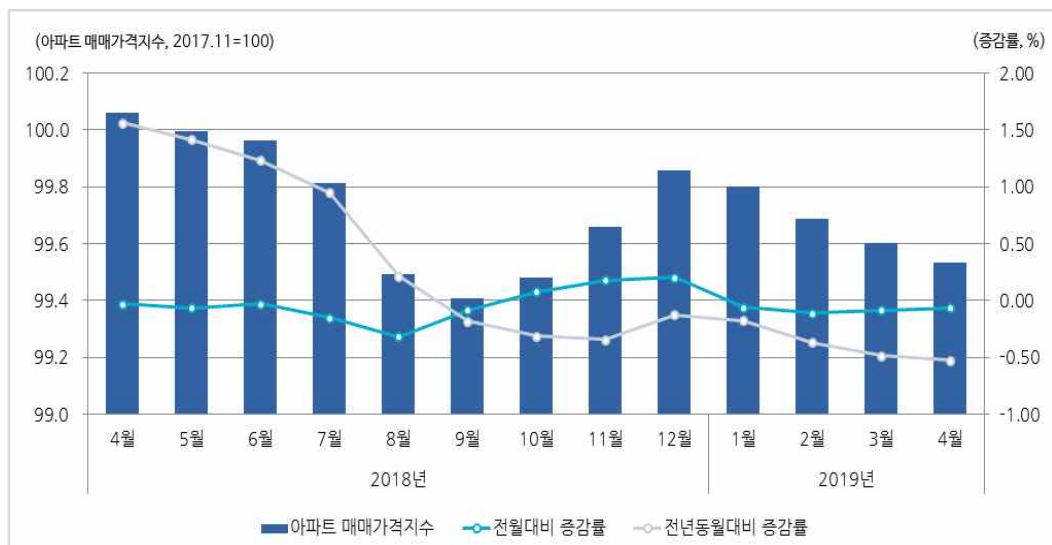
-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5로 전월대비 0.1(-0.07%)만큼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53%)만큼 감소

〈표 III-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증감률

(단위: 2017.11=100,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100.1	100.0	100.0	99.8	99.5	99.4	99.5	99.7	99.9	99.8	99.7	99.6	99.5	
전월대비 증감률	-0.03	-0.07	-0.03	-0.15	-0.32	-0.09	0.07	0.18	0.20	-0.06	-0.11	-0.08	-0.07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1.56	1.42	1.23	0.95	0.21	-0.18	-0.32	-0.34	-0.13	-0.18	-0.37	-0.49	-0.53	

(그림 III-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증감률



##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 지표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_지자체 수출입\_품목별\_201904총괄(인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_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

### ■ 지표의 변동내용

- 4월 수출액은 33억 5백만불로 전월대비 5천 3백만불(1.64%)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7천 6백만불(2.37%)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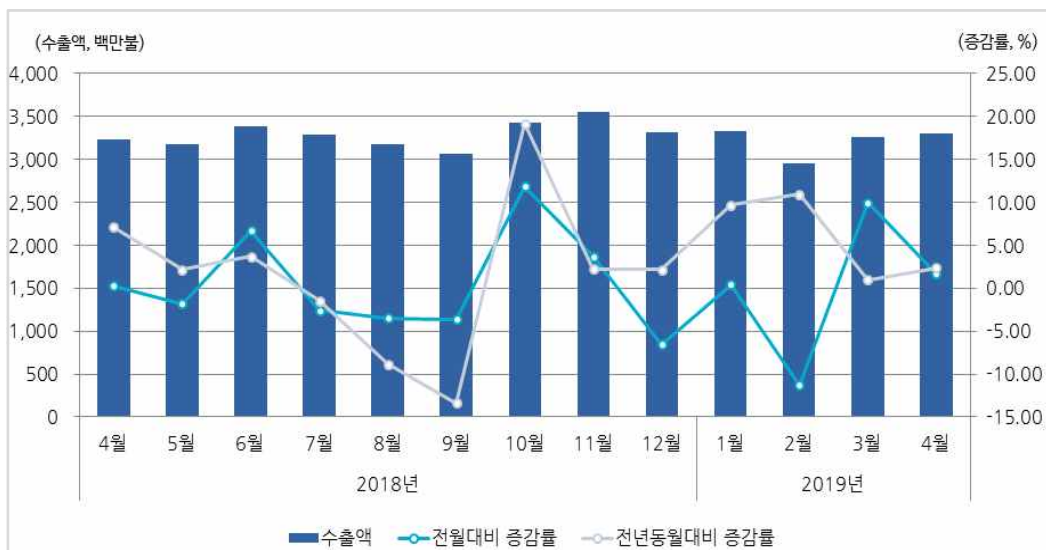
〈표 III-9〉 수출액과 증감률

(단위: 백만불,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수출액	3,229	3,169	3,380	3,292	3,178	3,063	3,426	3,551	3,318	3,333	2,957	3,252	3,305
전월대비 증감률	0.28	-1.85	6.66	-2.61	-3.47	-3.63	11.86	3.66	-6.56	0.44	-11.27	9.97	1.64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7.09	2.16	3.69	-1.49	-8.86	-13.36	19.12	2.21	2.13	9.65	10.94	1.00	2.37

주: 2019년 6월호부터 수출물가지수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 반영으로 실질수출액 전체 시계열이 변경됨

(그림 III-9) 수출액과 증감률



##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 지표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_지자체 수출입\_품목별\_201904총괄(인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_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

### ■ 지표의 변동내용

- 4월 수입액은 34억 3천만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9백만불(4.85%)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3천 6백만불(10.86%)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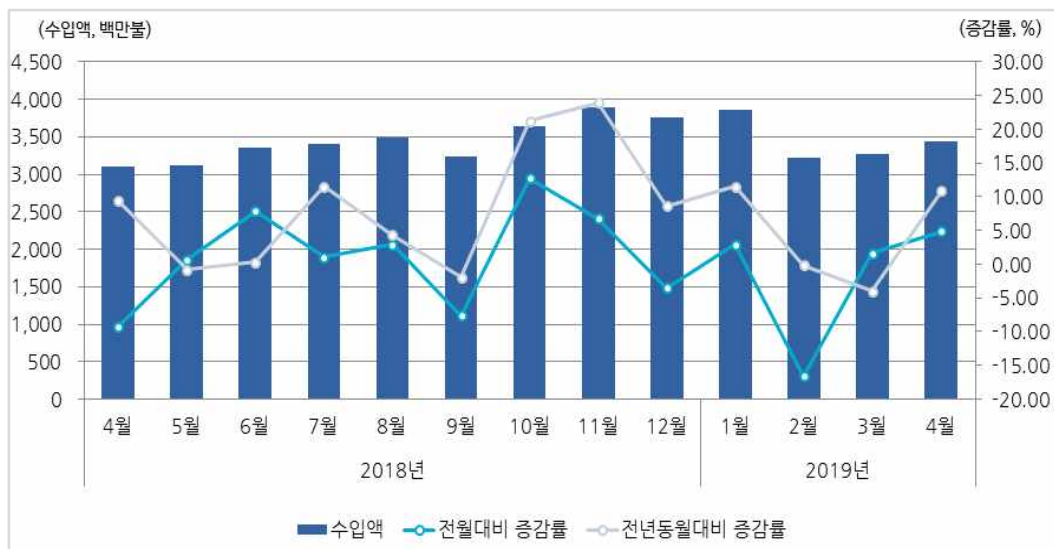
〈표 III-10〉 수입액과 증감률

(단위: 백만불, %)

항목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수입액	3,094	3,115	3,361	3,397	3,496	3,230	3,642	3,888	3,750	3,860	3,220	3,271	3,430
전월대비 증감률	-9.17	0.68	7.90	1.07	2.91	-7.61	12.75	6.76	-3.54	2.92	-16.58	1.60	4.85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9.37	-0.82	0.32	11.51	4.37	-1.95	21.24	23.94	8.59	11.48	-0.12	-3.96	10.86

주: 2019년 6월호부터 수입물가지수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 반영으로 실질수입액 전체 시계열이 변경됨

(그림 III-10) 수입액과 증감률





## IV.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 최근 추이

〈표 IV-1〉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 최근 추이

(단위: 종합지수 적용 2015 = 100, %; 순환변동치 적용 trend = 100, p)

구분 (년, 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순환변동치 전월차	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순환변동치 전월차
2016.04	102.2	-0.1	102.2	-0.4	102.1	-0.2	99.9	-0.5
2016.05	102.5	0.3	102.3	0.1	102.4	0.3	100.1	0.2
2016.06	102.6	0.1	102.1	-0.2	102.5	0.1	100.0	-0.1
2016.07	102.6	0.0	101.8	-0.3	102.9	0.4	100.3	0.3
2016.08	102.8	0.2	101.7	-0.1	103.7	0.8	100.8	0.5
2016.09	102.7	-0.1	101.3	-0.4	103.9	0.2	100.9	0.1
2016.10	102.5	-0.2	100.9	-0.4	103.6	-0.3	100.4	-0.5
2016.11	102.8	0.3	100.9	0.0	103.0	-0.6	99.6	-0.8
2016.12	102.9	0.1	100.8	-0.1	103.2	0.2	99.6	0.0
2017.01	103.0	0.1	100.6	-0.2	103.4	0.2	99.7	0.1
2017.02	103.0	0.0	100.3	-0.3	104.0	0.6	100.0	0.3
2017.03	103.5	0.5	100.5	0.2	104.7	0.7	100.6	0.6
2017.04	103.8	0.3	100.6	0.1	104.9	0.2	100.6	0.0
2017.05	103.9	0.1	100.4	-0.2	105.1	0.2	100.6	0.0
2017.06	103.9	0.0	100.2	-0.2	105.3	0.2	100.6	0.0
2017.07	104.2	0.3	100.2	0.0	105.7	0.4	100.8	0.2
2017.08	104.5	0.3	100.2	0.0	106.4	0.7	101.3	0.5
2017.09	104.8	0.3	100.2	0.0	106.8	0.4	101.5	0.2
2017.10	104.4	-0.4	99.5	-0.7	106.8	0.0	101.3	-0.2
2017.11	104.0	-0.4	98.9	-0.6	106.8	0.0	101.1	-0.2
2017.12	103.5	-0.5	98.1	-0.8	106.8	0.0	101.0	-0.1
2018.01	103.6	0.1	98.0	-0.1	106.9	0.1	100.8	-0.2
2018.02	103.7	0.1	97.8	-0.2	107.2	0.3	101.0	0.2
2018.03	104.4	0.7	98.3	0.5	107.0	-0.2	100.6	-0.4
2018.04	104.2	-0.2	97.8	-0.5	106.9	-0.1	100.3	-0.3
2018.05	104.0	-0.2	97.4	-0.4	106.6	-0.3	99.9	-0.4

2018.06	104.0	0.0	97.1	-0.3	107.1	0.5	100.2	0.3
2018.07	104.1	0.1	96.9	-0.2	107.5	0.4	100.3	0.1
2018.08	104.2	0.1	96.7	-0.2	107.7	0.2	100.4	0.1
2018.09	104.0	-0.2	96.3	-0.4	107.2	-0.5	99.8	-0.6
2018.10	104.0	0.0	96.0	-0.3	107.0	-0.2	99.3	-0.5
2018.11	104.0	0.0	95.8	-0.2	106.5	-0.5	98.8	-0.5
2018.12	104.3	0.3	95.9	0.1	106.5	0.0	98.5	-0.3
2019.01	104.3	0.0	95.6	-0.3	106.8	0.3	98.6	0.1
2019.02	104.2	-0.1	95.2	-0.4	105.9	-0.8	97.6	-1.0
2019.03	103.3	-0.9	94.1	-1.1	105.1	-0.8	96.7	-0.9
2019.04	103.2	-0.1	93.8	-0.3	104.6	-0.5	96.1	-0.6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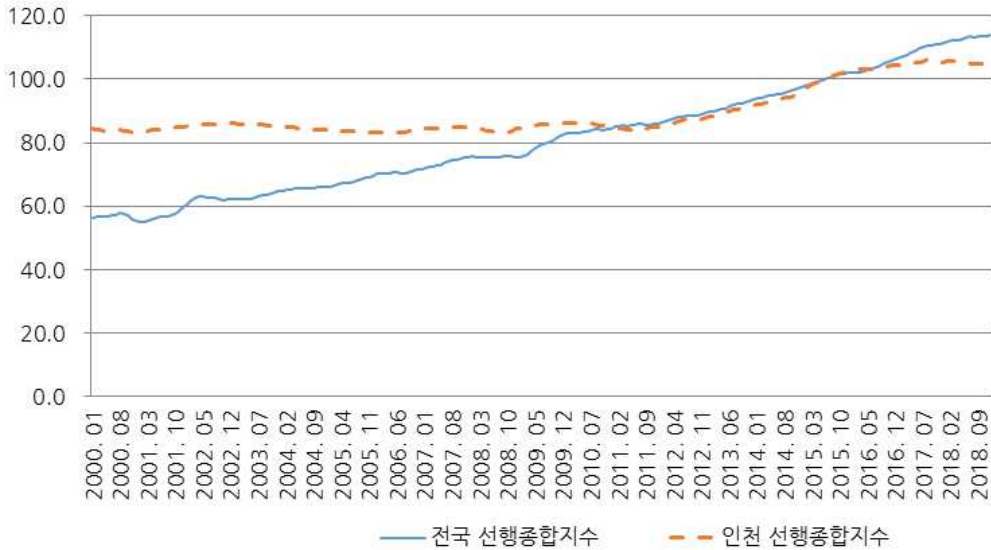
- (1)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는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작성되었음. 이것은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2015년)과 일치 시킴으로써 자료의 비교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2)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의 전월비 단위는 %임
- (3)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는 trend =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이것은 특정년도 기준이 아닌 큰 추세를 근거로 하는 개념임
- (4)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전월차 단위는 p임

## 부록. 경기종합지수 전국/인천 추이 비교

단위: 종합지수 2015=100, %; 순환변동치 trend=100, p (업데이트 주기: 6개월)

### 선행종합지수 (2000.01~2018.12)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2000.01~201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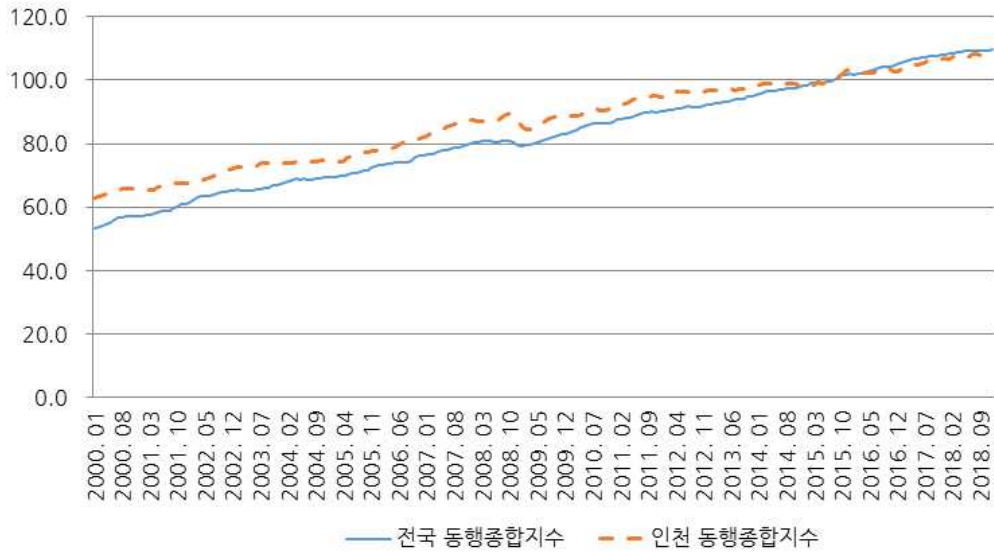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단위: 종합지수 2015=100, %; 순환변동치 trend=100,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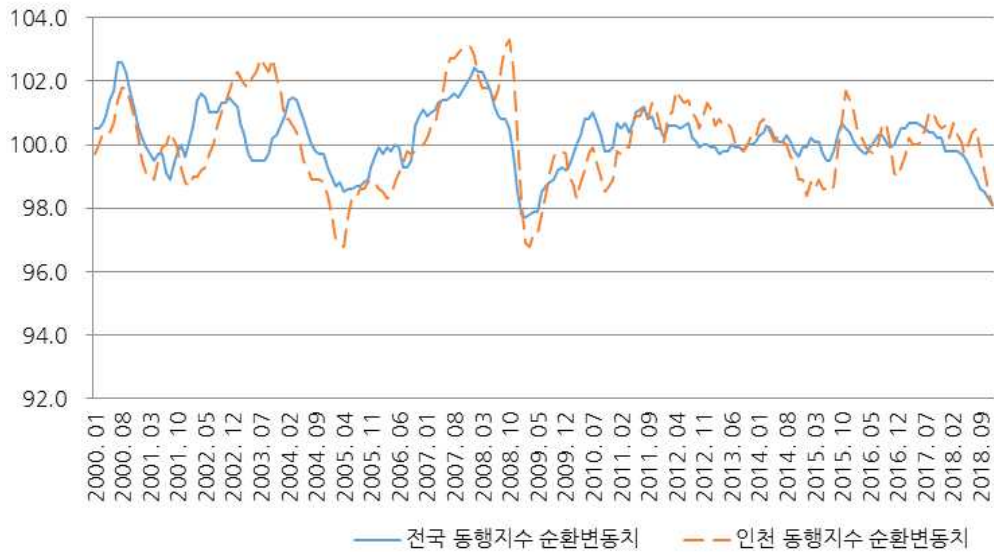
## 동행종합지수 (2000.01~2018.12)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2000.01~2018.12)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 부록. 인터뷰를 통해 본 인천시 청년 일자리<sup>1)</sup>

- 거시적인 고용지표를 넘어,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구체적인 경험(일자리를 얻기 위한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인천시 일자리 전망과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적으로 바라는 사항 등)을 드러내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청년의 취업과 사회적 독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에 근거하여, 인천시에서 청년수당 지원자격을 만39세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용 창출의 '양적' 문제, 급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지역적 무관심, 서울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구조적 조건을 넘어설 수 있음

### 1. 인천시 청년 일자리 현황

- 최근 수년간 청년층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반 증가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청년 고용률: 41.2%(2015년) → 42.7%(2018년), 청년 실업률: 9.1%(2015년) → 9.5%(2018년)<sup>2)</sup>] 또한 잠재 취업자, 잠재 구직자 등 모두 증가세에 있으며,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나 이들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졸업 후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0개월(2015)에서 10.7개월(2018)로 증가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sup>3)</sup>
- 이때 일자리는 결국 개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어, 지역 차원의 정책 설계와 집행이 중요해지고 있음. 지역 청년수당이 크게 이슈화되었듯, 대부분의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역시 이 흐름에 맞춰 ▲청년의 실질적 취업을 돕는 사업 ▲인천에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 ▲청년들이 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1석 5조 인천 청년 사랑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의상 무료 대여 사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인천

1) 이 부록은 2019년 인천경제동향 6월호부터 올 한해 분기별로 실릴 예정이며, 경기종합지수로 포착할 수 없는 인천의 경제 현황과 전망을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음. 첫 기획으로는 인천의 청년 일자리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9월호와 12월호에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다른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임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3) 경찰청 청년층 부가조사

창업재기펀드', 청년 고용촉진 인턴 사업, 블라인드 채용대비 맞춤형 취업 코칭제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인천시 주요 고용 및 일자리 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4/4분기 인천시 청년 실업률은 7.9%로, 2017년 1분기 11.8%에 비해 감소 추세이며,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인 8.3%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같은 기간 인천의 청년 고용률은 49.1%로 2017년도 1분기 43.4%보다 5%p 넘게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42.9%를 기록함<sup>4)</sup>
- 이와 같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청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
-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인천경제동향> 6월호 부록을 통해 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함

## 2. 청년의 목소리

- 이처럼 거시적인 고용 및 일자리 지표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뷰와 같은 질적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이유는 청년층의 삶의 경험을 포착함으로써 지역의 청년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풍부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연구자 혹은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청년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참여하고 행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정책 효과와 실행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대화와 의사소통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획의 의도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고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5명을 만나 면담을 진행
- 심층 인터뷰는 2019년 3월~4월 인천 내 카페를 비롯한 조용한 장소에서 약 2~3시간 가량 시행되었으며,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의 개인적인 경제 상황,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인천시 일자리 전망과 정책에 대한 평가, 청년수당 등 최근 청년 이슈에 대한 생각 등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던지되, 지역 일자리와 관련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
- 각기 다른 경험을 지닌 청년들을 만나봄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으며, 인터뷰 대상자별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인터뷰 대상자

이름	성별	연령(만)	결혼 여부	학력	인천 거주기간	월평균 생활비	주거 형태	취업 상태	직장	취업 준비 기간	비고
영수	남	34	O	고졸	16년	500만원 (3인가구 자녀포함)	월세 (아파트)	O	사회적 기업 대표	-	인천 청년네트 워크 회원
유정	여	33	X	대학원졸	30년	40만원	부모님집	X	-	-	
재원	남	27	X	대학 재학 중	8년	90만원	월세 (원룸)	X	-	1년	
민우	남	32	X	대졸	4년	75만원	전세	X	-	2년	
혜진	여	29	X	대학 휴학 중	10년	55만원	내임대	X	청년 활동가	-	인천청년 유니온

\*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름은 요청에 따라 가명 처리함

### 3. 이슈별 인터뷰 결과

#### (1) 취업준비 시 가장 큰 어려움: 청년층의 구조화된 불안

- 현재 무직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힘든 점으로 꼽고 있었음. 부모님의 도움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거나, LH 대학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평균 생활비가 50-70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월세) 포함 약 90-100만 원까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유정처럼 “모아둔 돈이 바닥인 상황”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음

#### 재원 “아무리 아껴 써도 80만원 이상”

준비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원룸 월세 같은 주거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생활비 지출은 계속 생기는데,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상 수입이 변변찮아서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학교 근처에서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식비나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더해져도, 거의 100만 원 정도는 나간다고 보면 된다. 아무리 아껴 써도 80만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대학 나온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졸업하면, 생활비는 학자금대출에서 받는 거니까 졸업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대출금 갚아야 하고 너무 암울한 것 같다.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도 적은 일자리 가지고 경쟁해야 하고, 답답하다.

#### 민우 “부모님께 연락드리기도 죄송”

취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보다, 취업이 계속 미뤄지는 동안 발생하는 기본적인 생활비용이 제일 부담된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 특히 제대로 된 취업이 늦어지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족과 특별한 마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화로 안부를 먼저 여쭙보는 것조차 죄송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든다.

### 헤진 “삶의 기본이 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

작년 11월, 인천시 500인 시민 원탁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너무 불안하다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청년 삶의 기본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 이처럼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민우는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포함한 그동안 맺었던 여러 사회적 관계들이 취업 준비기간 동안 끊어지거나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들다” 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는 소소한 비용조차 현재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스스로의 처지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애매” 함을 토로
- 재원 또한 “취업과 독립이 불가능할 거라는 불안” 이 크며, “아무리 성적 올리기와 스펙 쌓기에 몰두하더라도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음” 을 강조.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격증이나 공모전, 여러 경험들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해도, 취업준비의 자격요건이지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며, “ 내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면,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딱히 좋은 학벌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 고 강조함
- 이러한 청년층의 구조화된 불안은 그 불안을 온전히 청년 개인 스스로 감당해야내야 하는 현실과도 관련.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연구한 김영, 황정미(2013)는 청년들의 진로 설정과 생애계획 설정에 있어 ‘요요 이행’ 과 ‘DIY 일대기’ 라는 두 가지 현상을 발견. 요요 이행이란 이들이 이행기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획적으로 다양화되지 못하고 단선화된 경로 안에서 앞뒤로 오가는 현상을 의미하며, DIY 일대기는 청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 고군분투는 하고 있으나 부족한 자원과 사회 모순에 직면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sup>5)</sup>
- 위 사례처럼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이 지역 차원에서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2)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천의 일자리

-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대부분 인천시 일자리에 대해, 조건에 맞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다양성’ 과 ‘좋은 일자리’ 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5) 김영·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 영수 “전공을 살리기 쉽지 않아”

인하대 의류디자인학과를 다녔었는데, 당시에 학과는 만들어놓았으나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인천에서 전공을 살려 패션 관련 일을 찾기가 힘들었다. 왜 쓸데없이 학과를 만들었나 이런 느낌이 강했다.

### 민우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

서울이나 일부 경기도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의 다양성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인천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제조업체나, 몇몇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 그리고 서비스업종 이외에 인천에서 어떤 색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인천에 과연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지 역시 의문이다. 여기서 좋은 일자리란, 어느 정도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고, 만족할만한 급여 수준에다가,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곳들을 말하는데, 과연 그런 종류의 일자리가 풍부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천시 일자리는 노동 생활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아마 취업이나 고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인천 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고 싶을 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 이런 일자리를 백만개 만들어낸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복리후생도 괜찮은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도 마음 놓고 인천에서 직장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인천시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관심 밖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며, 이는 인천의 지역적 정체성과도 관련

### 유정 “인천에 뿌리를 내린 상태가 아니란 생각”

인천은 서울 집값이 비싸서 차선택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인하대 나온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인천에는 알바 할 곳도 별로 없다고 이야기 했던 적이 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님 댁에 그냥 얹혀살고 있는 거지, 인천에 뿌리를 내린 상태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

### 재원 “인천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현실”

고 3때 인천에 있는 학생들은 인천 내 대학보다는 점수가 더 하위권이라도 서울로 가고 싶어 했다. 인천에 거주하긴 하지만, 생활권 자체가 서울인 사람들이 많아 청년들에게 인천은 관심 밖이다. 서울만한 조건의 일자리가 많지 않을뿐더러, 서울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게 되지 인천의 일자리에 대해 인천시민으로서 고민하게 되지는 않는다.

### 혜진 “서울의 좋은 인프라에서 일하면서 출퇴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

그동안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었던 것이 청년들이 인천에 정주의식을 가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청년의 모든 생활의 기본이 일자리인데,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 다들 인천에서 일하느니 서울의 좋은 인프라에서 일하면서 출퇴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생활기반을 인천에서 다질 수 있는 정책이 없었다.

- 위 서술에서 드러나듯 단순히 일자리의 양이나 질뿐만 아니라, 타 지역(서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가 중요

### (3)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 한편, 인천시 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보와 인지도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이들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각개돌파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지적하거나,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

#### 민우 “인천의 눈에 띄는 정책 부재”

정책 홍보 자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인지도 자체가 낮은 문제뿐 아니라, 서울이나 성남하면 청년수당이 바로 생각나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시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수당, 서울혁신파크 등 청년 활동을 위한 각종 공간이나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접해 본 반면에, 인천시는 눈에 띄는 정책이 부재한 것 같다.

#### 재원 “사업 자체를 모르고 정보가 부족”

인천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건, 일단 사업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상황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사실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지역(인천시) 기관이나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각개돌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취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도 각자가 다 알아서 찾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것

#### 혜진 “청년 이행기가 길어지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인천의 일자리는 전공을 살리기가 어려워 다들 갈팡질팡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걸 지원받을 체계가 너무 없기도 하다. 구직지원활동금이 막 생겨나고 있지만 졸업한 지 꽤 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 청년의 이행기가 길어지면서 조건이 바뀌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행기가 길어지는 사람들은 정책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 이처럼 정보 부족뿐 아니라, 점점 취업과 사회적 독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존재

#### (4) 정책을 통한 희망 찾기

- 앞서 살펴본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일부는 인천시 청년 네트워크 등 최근 지역 정책수립에 청년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함

##### ① 청년 삶의 질(사회적 관계 포함) 보듬는 정책

-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sup>6)</sup>의 확대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혜진의 경우, “피아노 치는 취미를 갖고 싶지만, 피아노 배우면 알바를 해야하고 알바 하면 피아노 칠 시간이 없는”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라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구가 와 닿았다고 구술
- 영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청년의 삶을 어렵게 하는 조건 자체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으나, 대부분은 청년수당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냄
- 이와 더불어 인터뷰를 통해 수당을 통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 민우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이 필요”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인데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학교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다.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많이 협소해진다. 넓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안 만나게 되고.

- 청년수당 역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게 중요. 같은 동네에 사는 수당 참여자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사회관계망도 맺는 모임이나, 취업이나 창업과 연계한 진로 모색 등 청년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까지 보듬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
- 이처럼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관계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

6) 청년수당은 기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 청년실업을 상승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과 사회와의 단절된 청년들의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입하여,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부터 29세의 서울시에 사는 미취업 청년들 중 일부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 씩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34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졸업 2년 이후라는 기준이 추가됨. 인천시 역시 2019년부터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드림체크카드를 발급할 계획

## ② 지역 내 다양한 삶과 사회진출 경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 재원 “사회진출 경로가 고정되는 현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경영대 열람실 가면 한쪽은 회계사, 또 한쪽은 다 세무사 준비만 한다. 생각이 ‘고정’ 되는 것 같다. 뭐라도 한 개 해놔야겠다는 조급함에 학생의 8할 이상이 회계사 준비하다가 잘 안되면 ‘아무데나 들어가자’ ‘온갖 자소서 다 쓰면서 아무데나 한 곳만 걸려라’ 이렇게 된다. ‘자소서 쓰는 기계’가 된다.

- 청년들은 획일적인 직업 경로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로를 강화하는 취업지원 정책이 아니라,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제3의 대안적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 필요
-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신설 제안. 청년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더불어,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 취업 지원 사업들은 이들에게 실질적, 지속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
-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획일적인 삶의 경로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취업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구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우 “정책에서 소외된 소수 청년들도 포용해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하는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보통의 ‘평범한’ 일자리를 가지길 원하는 (또는 그렇게 될) 청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기존의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의 틀을 벗어난 프리랜서 청년들이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등 평범한 진학 경로를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은 배제되기가 쉽다. 저 역시 출판시장에서 프리랜서로서 잠시 일해본 경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프리랜서라고 하면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부러운 직업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의 실상은 조금 다른 경우가 많다. 일을 주는 사람과 갑을 관계를 맺으면서 부당한 대우나 흔히 말하는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소수의 청년들까지 정책적으로 포괄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혜진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일자리 정책 안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 노동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안전하지 않은 일터, 포괄임금제 이슈를 비롯하여, 일자리 정책에 소외된 부분들을 주목해야 한다.

- 또한 다양한 조건에 있는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도 존재했으며,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필요

### ③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착하여, 인천에서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영수는 “외부로부터 청년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지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확대” 되어야 함을 강조

#### 영수 “외부로부터의 청년 유입이 아닌, 인천 청년을 키워내야”

지금 인천의 일자리 정책은, 인천시 청년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을 인천시에 유입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코 유치했다고 해서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도 없고, 유유기지의 경우 서울시 청년기업이 설계했다고 알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서울과 경기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부 역량이 키워지지 않는다.

#### 유정 “인천은 거쳐 가는 지역, 뿌리내리가 어려워”

인천은 청년 누구도 뿌리내리고 싶지 않아 한다. 지속적으로 일할 일자리가 있다면 그런 의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천에서는 지속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다. 그냥 서울에서 밀려난 것들을 떠안는, 거쳐 가는 지역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 이를 위해 청년들 대부분은 “인천은 청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는 영수의 말처럼, 청년 참여 거버넌스와 협력체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인천의 주인이 청년 스스로라고 생각하게끔” 인식의 토대를 바꿔나가야 함
- 왜 하필 인천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천이라는 도시의 기회를 봤기 때문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영수의 답변처럼, 많은 청년들에게 인천이 ‘기회의 도시’ 이자 ‘뿌리내리고 싶은 지역’ 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인천에서 주거를 포함한 청년들의 삶이 안정되고 행정과의 소통이 시작되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뿌리내릴 수” 있을 것

#### 4. 인터뷰를 마치며

- 핀란드의 '청년보장에서 지역보장으로' 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일자리 영역에서도 지역적 차원의 정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천경제동향〉 부록을 통해 이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음
- 5명의 인터뷰 대상자는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 취업에 대한 상이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의 삶의 조건에 있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인천의 청년 인구 유입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드러나듯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으며, 인천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그동안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
-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들 청년들이 '잠시 머물다가' 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인천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 창출의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
-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교육, 노동시장, 사회복지 문제 등의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부처의 개별적 노력보다는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sup>7)</sup> 대응 방안도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함. 청년층이라는 집단 역시 내부구성이 매우 다양한 이질적 집단이므로, 명확한 정책 대상 설정과 이들의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sup>8)</sup>

7) 미국 청년정책 범부처 합동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의 경우, 행정부처가 각자 독립적 정책을 수행하기보다 여러 부처의 자원을 조율하고 함께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에 따라 범부처 합동기구를 설립. 핀란드의 원스톱안내센터(One-stop Guidance Center) 역시 부처가 협업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8) 예를 들어 저소득가구 청년에게는 취업준비에 필요한 금융제약 완화를 통한 기회 보장 필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트랙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 등

---

## 인 천 경 제 동 향

---

발 행 일	2019년 6월		
발 행	인천광역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일 자리 경 제 과 장	홍 준 호
		일 자리 경 제 기 획 담 당	김 진 성
		담 당 자	박 혜 란
	인천연구원	연 구 위 원	조 승 헌
편집 · 디자인	이은지 · 김요한 · 서담은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전 화	032) 440-3265 (인천광역시), 032) 260-2693 (인천연구원)		
팩 스	032) 440-8618 (인천광역시), 032) 260-2629 (인천연구원)		
홈 페이지	<a href="http://www.incheon.go.kr">www.incheon.go.kr</a> (인천광역시) <a href="http://www.ii.re.kr">www.ii.re.kr</a> (인천연구원)		

---

본 간행물은 인천광역시청과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